



PORSCHE



포르쉐 2017 제네바 모터쇼

프레스킷

목차

포르쉐 2017 제네바 국제 모터쇼 참가

신형 파나메라와 911 모델의 월드 프리미어 데뷔 4

유용성과 편리함을 더한 새로운 스포츠카 라인업: 파나메라 스포츠 투리스모	4
918 스파이더 콘셉트 적용: 파나메라 터보 S E-하이브리드	5
일상의 드라이빙부터 레이스 트랙까지: 500 마력의 신형 911 GT3	5
더욱 강력한 파워: 신형 포르쉐 911 GTS	6
새로운 중국 시장 전용 모델: 파나메라 이그제큐티브	6
스위스 시장에서의 연이은 기록	6

새로운 디자인의 신형 포르쉐 파나메라

제네바 월드 프리미어: 스포츠 투리스모 출시로 파나메라 라인업 강화 8

올라운드 스포츠카의 디자인과 콘셉트	8
세그먼트 최초로 적용된, 확장 가능한 루프 스포일러	9
3개 시트로 새롭게 디자인된 뒷 좌석	9
파나메라 스포츠 투리스모 5종 출시 및 가격	10

2017 제네바 모터쇼 월드 프리미어 공개: 파나메라의 두번째 하이브리드 모델

가장 강력한 파나메라, '파나메라 터보 S E-하이브리드' 11

V8 엔진과 전기 모터가 결합된 독특한 주행 콘셉트	11
스포츠카 성능, 장거리 주行的 편안함, 효율성 3가지 요소의 조화	12
'파나메라 터보 S E-하이브리드 이그제큐티브' 모델 데뷔	12

모터스포츠 기술을 접목해 더욱 강력해진 자연흡기엔진 및 새시

도로와 트랙 위를 아우르는 911, 신형 포르쉐 911 GT3 13

빠른 코너링과 안정적인 직선 주행	13
다이나믹한 주행 경험을 위한 특별한 인테리어	14
기본 사양으로 제공되는 포르쉐 트랙 프리시전 엡	14
출시 및 가격	14

목차

더욱 강력해진 신형 모델 출시로 포르쉐 911 라인업 강화 역동성과 편안함, 연비 효율까지 갖춘 신형 포르쉐 911 GTS	15
보다 향상된 퍼포먼스를 위한 강력한 파워	15
GTS 를 대표하는 블랙 컬러	15
새로워진 포르쉐 트랙 프리시전 앱과 고품격 인테리어 장비	16
 연료 소비 및 배출	 18

03/2017

포르쉐 2017 제네바 국제 모터쇼 참가

신형 파나메라와 911 모델의 월드 프리미어 데뷔

제네바. 포르쉐는 오는 3월 7일부터 19일까지 스위스에서 개최되는 제 87회 제네바 국제 모터쇼에서 총 3종의 스펙터클한 월드 프리미어 모델들을 공개한다. 포르쉐는 그란 투리스모 패밀리와 새로운 세그먼트 모델인 '파나메라 스포츠 투리스모'를 선보인다. 독특한 디자인, 승객과 짐을 위한 한층 더 넓어진 공간, 혁신적인 바디 라인으로 스포티한 우아함은 물론, 일상 생활에서의 실용적인 부분까지 폭넓게 충족시킨다. '신형 파나메라 터보 S E-하이브리드' 역시 기대되는 모델이다. 포르쉐는 파나메라의 두 번째 하이브리드 버전(680 마력)을 새롭게 선보이며, 처음으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을 최상위 라인으로 배치했다. 또한, 모터스포츠 기술력을 접목한 모델인 포르쉐 911 GT3도 공개한다. 500마력(368kW) 성능의 고회전 자연흡기 엔진을 탑재한 신형 911 GT3 모델은 일반 도로의 일상적인 주행에서도 레이스 트랙 위에서와 같은 차별화된 주행 경험을 제공한다. 이 밖에도 911 GTS 모델 역시 제네바 모터쇼를 통해 첫 데뷔를 자축할 예정이다.

유용성과 편리함을 더한 새로운 스포츠카 라인업: 파나메라 스포츠 투리스모

포르쉐의 파나메라 모델에 대한 아이디어는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다. 제네바 모터쇼에서는 2세대 파나메라의 슈팅브레이크 버전 '파나메라 스포츠 투리스모'가 월드 프리미어로 공개된다. 이 차량은 포르쉐의 전통적인 디자인 DNA를 가진 4도어 모델로 공간 활용성을 더욱 높인 것이 특징이다. 기존 쿠페 스타일 스포츠 세단에 비해 더욱 곧게 뻗은 B-필러와 루프 라인이 품격 있고 우아한 외형을 완성했으며, 승객과 짐(4+1 seating concept)을 위해 더 넓은 공간을 갖췄다. 또한, 더욱 커진 전자식 테일게이트로 부피가 큰 스포츠 장비 및 여행용 짐들을 보다 쉽게 실을 수 있다. 파나메라 스포츠 투리스모는 올해 가을 중 출시될 예정이며, 파워트레인 및 출력 타입으로 구분되는 5 종류의 파나메라 라인업에는 '파나메라 4', '파나메라 4S', '파나메라 4S 디젤', '파나메라 4 E-하이브리드' 및 '파나메라 터보' 모델이 있다.

918 스파이더 콘셉트 적용: 파나메라 터보 S E-하이브리드

포르쉐 918 스파이더는 강력한 V8 엔진과 높은 토크의 일렉트릭 드라이브 결합으로 2013년 뉘르부르크링(Nürburgring) 서킷에서 가장 빠른 속도를 자랑하는 슈퍼 스포츠카로 자리매김했다. 이제는 파나메라 터보 S E-하이브리드 모델이 918 스파이더의 콘셉트를 차용,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하이브리드 세단의 자리를 차지했다. 550마력(404kW)의 8기통 엔진과 136 마력(100kW)의 전기 모터를 결합한 신형 파나메라 터보 S E-하이브리드는 평균 연료 소비량(NEDC 기준)은 2.9 l/100 km이며, 전기 소비량은 16.2 kW/h이다. 정지상태에서 시속 100km/h까지 가속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단 3.4초로 탑클래스 스포츠카 수준의 퍼포먼스를 발휘한다. 또한, 완충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전기 모드만으로 50km까지 주행할 수 있다. 최상의 기술력이 적용된 파나메라 새시는 스포츠카의 다이내믹한 코너링과 렉서리 세단의 편안함을 지원하며 다양한 세그먼트로의 확장을 이뤄냈다. 또한, 포르쉐는 파나메라 터보 S E-하이브리드를 통해 스포츠카급의 성능을 발휘하는 전기차 개발 분야도 선도하고 있다. 파나메라 라인의 최상위 신형 모델은 두 종류의 휠 베이스 모델로 구성되며, 올해 7월 중 전세계에 출시될 예정이다. (글로벌 기준)

일상의 드라이빙부터 레이스 트랙까지: 500 마력의 신형 911 GT3

더 강한 파워, 더 빠른 스피드, 더 완벽한 정확도: 포르쉐 모터스포츠 부서는 새로운 레이스 트랙의 지배자 911 GT3를 만들어냈다. 500마력(368 kW)의 새로운 4리터 수평대향 엔진을 탑재한 911 모델은 911 GT3 Cup 모델의 레이싱 엔진과 사실상 거의 동일하다. 또한, 기본 포르쉐 듀얼 클러치(PDK) 트랜스미션 외에도 6단 스포츠 트랜스미션 옵션이 처음으로 추가되었다. 리어 액슬 스티어링이 장착된 포르쉐 액티브 서스펜션 매니지먼트(PASM) 새시의 반응성 최적화로 더욱 다이내믹하고 향상된 주행이 가능하다. 이 모델은 듀얼 클러치(PDK)를 장착하면 정지 상태에서 100 km/h까지 가속하는데 단 3.4초밖에 걸리지 않는다. 최고 속도는 318 km/h에 이르며, 메뉴얼 트랜스미션(manual transmission)이 장착된 경우 320 km/h까지 높아진다. 911 GT3는 더욱 당당하고 외향적이다. 공기 역학에 대한 포르쉐의 모터스포츠 기술력은 공기 흐름보다 높게 위치한 911 GT3의 리어 윙과 전면의 커다란 에어인테이크, 아웃렛, 본네트와 리어 엔드에도 반영됐다. 신형 911 GT3는 올해 6월 중순경 출시 예정이다. (글로벌 기준)

더욱 강력한 파워: 신형 포르쉐 911 GTS

더 강력한 파워의 911 모델을 원하는 고객들을 위해, 포르쉐는 신형 GTS 스포츠카 5종을 새롭게 선보이며 GTS 모델의 또 다른 역사를 쓴다. 신형 모델에는 후륜 구동 또는 사륜 구동의 쿠페와 카브리올레 그리고 911 타르가 4 GTS가 포함된다. 모든 모델은 최대 450마력(331 kW) 출력이 가능한 향상된 엔진을 탑재했으며, 사륜 구동 모델의 넓은 차체, 포르쉐 액티브 서스펜션 매니지먼트(PASM) 스포츠 새시와 특별한 인테리어를 자랑한다. 새롭게 개발된 3리터 6기통 터보 차저 엔진은 기존 911 카레라 및 타르가 S 모델에 비해 30마력(22 kW)까지 파워가 증가했다. 낮은 프런트 스포일러와 높아진 리어 스포일러는 기존 카레라 S 모델과 비교해 차의 전후방 차축에 가해지는 양력을 더욱 감소시킨다. 블랙 디자인 요소들, 블랙 실크 광택 마감의 센트럴 락이 장착된 20인치 휠, 도어 부분의 GTS 로고는 신형 모델들의 외형적 특징이다.

새로운 중국 시장 전용 모델: 파나메라 이그제큐티브

포르쉐는 제네바 국제 모터쇼의 시작과 함께 중국 내 '파나메라 이그제큐티브' 모델을 확대한다: 올해 10월부터 중국 시장 전용의 후륜 구동 방식의 파나메라 스포츠 세단 롱휠 베이스 모델을 출시할 예정이다. 330 마력(243 kW)의 3리터 V6 터보 엔진을 탑재한 신형 파나메라 이그제큐티브는 중국 고객들에게 매력적인 가격과 함께 호화롭고 럭셔리한 그란 투리스모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 다른 신형 모델 파나메라 터보 S E-하이브리드 이그제큐티브 모델들도 파나메라 이그제큐티브와 함께 중국 시장의 이그제큐티브 라인을 보완하게 된다. 파나메라 터보 이그제큐티브(550마력), 파나메라 4S 이그제큐티브(440마력), 파나메라 4 E-하이브리드 이그제큐티브(462마력) 및 파나메라 4 이그제큐티브(330마력)가 포함된다.

스위스 시장에서의 연이은 기록

포르쉐는 65년 동안 스위스에서 스포츠카를 판매해 오고 있으며, 2016년 역시 또 다시 기록적인 한 해를 만들었다: 2016년 포르쉐는 3,970대의 차량을 인도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약 4% 정도 상승한 신기록이다. 가장 성공적인 모델은 1,650대가 판매된 마칸이며, 1,050대가 판매된 911이 그 뒤를 이었다. 클래식 시장의 사륜 구동 모델 중에서는 특히,

911 카레라 4S의 수요가 높았다. 더불어, 카이엔 모델 총 682대 중 30%는 하이브리드 드라이브로 판매되었는데 이것은 스위스 포르쉐 고객들이 미래 플러그인 기술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기도 한다.

새로운 디자인의 신형 포르쉐 파나메라

제네바 월드 프리미어: 스포츠 투리스모 출시로 파나메라 라인업 강화

슈투트가르트. 포르쉐는 2017 제네바 모터쇼에서 파나메라 스포츠 투리스모를 월드 프리미어로 선보이며 파나메라 라인업을 강화한다. 파나메라 4, 파나메라 4S, 파나메라 4S 디젤, 파나메라 4 E-하이브리드 및 파나메라 터보까지 총 5종으로 구성된 새 모델은 흠잡을 곳 없는 디자인을 갖춘 스포츠 세단으로서 럭셔리 세그먼트에서 다시 한번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최고 출력 550마력(404kW)의 스포츠 투리스모는 그 어떤 동급 모델보다 다재다능하다. 커다란 테일게이트, 낮은 로딩 엣지, 보다 많은 짐을 실을 수 있는 넓은 공간, 4+1 시팅 콘셉트를 갖춘 신형 파나메라 모델은 일상 생활에서의 실용성과 극대화된 유연성의 완벽한 조화를 제공한다. 포르쉐 디자인 총괄 마이클 마우어는 "포르쉐에 있어 파나메라 스포츠 투리스모는 기존 포르쉐의 가치와 특성을 유지하는 한편, 새로운 세그먼트로 한 단계 더 나아간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기술 및 디자인 관점에서 스포츠 투리스모는 불과 1년 전에 출시된 신형 파나메라의 혁신 요소들을 모두 활용하고 있다. 디지털 포르쉐 어드밴스드 콕핏(Porsche Advanced Cockpit),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을 갖춘 포르쉐 이노드라이브(Porsche InnoDrive), 리어 액슬 스티어링 및 포르쉐 다이내믹 새시 컨트롤(PDCC Sport)과 같은 새시 시스템, 전자식 롤 스태빌라이제이션 및 강력한 파워트레인 등이 보조 시스템으로 지원된다. 더불어, 모든 파나메라 스포츠 투리스모 차량은 최적의 동력을 전달하는 사륜구동 시스템인 포르쉐 트랙션 매니지먼트(PTM)를 장착하고 있다. S 모델의 경우, 세 개의 챔버(chamber) 기술을 적용한 어댑티브 에어 서스펜션(adaptive air suspension)이 기본 사양으로 제공된다.

올라운드 스포츠카의 디자인과 콘셉트

쿠페 스타일의 파나메라 스포츠 세단 스포츠 투리스모는 포르쉐 디자인 DNA를 완벽하게 반영한 다이내믹한 특징을 갖는다. 차체 길이는 5,049mm, 높이 1,428mm, 폭 1,937mm이며, 확장된 휠베이스는 2,950mm로 늘어났다. 짧은 차체 오버행(overhang)과 21인치의 큰 휠이 만드는 실루엣도 특징적이다.

스포츠 투리스모의 B-필러, 즉 리어 도어 부분부터 시작되는 리어 디자인은 유니크한 특징을 보여준다. 두드러진 숄더 라인 위로 길게 뻗은 윈도우 라인과 루프 윤곽은 차량의 두드러진 외형을 완성한다. 리어 부분에서는 D-필러가 윈도우 라인에 비해 드라마틱하게 줄어들지 않는 돌보이는 루프 라인을 보이며, 쿠페와 같은 스타일에서 볼 수 있는 숄더 섹션이 나타난다.

세그먼트 최초로 적용된, 확장 가능한 루프 스포일러

차량의 맨 뒷부분의 경우, 루프가 어댑티브 스포일러(adaptive spoiler)까지 이어진다. 루프 스포일러(roof spoiler)의 각도는 주행 상황 및 차량 세팅에 따라 세 단계로 맞춰질 수 있으며 리어 액슬(rear axle) 부분에 최대 50kg까지 추가적인 다운포스를 발생시킬 수 있다. 시속 170km까지는 공기역학적 가이드 요소인 포르쉐 액티브 에어로다이내믹(PAA, Porsche Active Aerodynamics)의 센트럴 컴포넌트가 접힌 위치에서 마이너스 7도로 유지돼 드래그를 감소시키는 동시에 효율적인 연료 소비가 가능하다.

시속 170 km 이상일 경우, 루프 스포일러는 자동적으로 퍼포먼스 포지션으로 들어가며 각도 1도로 맞춰져 안정적이면서 다이내믹한 측면 주행을 가능케한다. 스포츠 및 스포츠 플러스 주행 모드일 경우, 루프 스포일러는 역시 자동으로 퍼포먼스 포지션에 맞추어지며, 속력은 90 km/h 이상으로 유지된다. 포르쉐 액티브 에어로다이내믹 역시 시속 90 km 이상에서 파노라믹 슬라이딩 루프(panoramic sliding roof)가 열리는 경우 자동적으로 루프 스포일러(roof spoiler)의 각도 경사를 26도까지 맞추면서 윈도우 노이즈 최소화를 돕는다.

3개 시트로 새롭게 디자인된 뒷 좌석

신형 스포츠 투리스모는 뒷 좌석이 3개 시트로 구성된 첫 번째 파나메라 모델이다. 스포티한 퍼포먼스와 극대화된 승차감을 제공하는 독립적인 형태를 지닌 바깥쪽의 두 개의 시트와 함께 뒷 좌석은 2+1 의 시트 배치 형태를 갖췄다. 파나메라 스포츠 투리스모는 또한 리어 부분의 전기 기반 제어식 독립 시트 2개를 포함한 4개 시트 배치 형태도 옵션으로 제공한다.

스포츠 투리스모의 높아진 루프 라인 덕분에, 뒷 좌석의 승하차가 한층 수월해졌으며 머리와 루프 사이의 간격도 한결 여유로워졌다. 넓은 전기식 오프닝 테일게이트와 높이 628mm의 로딩 엣지를 통해 트렁크 또한 실용성을 자랑한다. 리어 시트의 윗 쪽 모서리 부분부터 측정 시, 스포츠 투리스모의 적재공간은 최대 520리터로 기존 스포츠 세단 모델(파나메라 4 E-하이브리드 스포츠 투리스모: 425 리터)보다 20 리터 크다. 리어 시트를 접은 상태에서 루프

레벨 정도로 짐을 실었을 경우, 약 50 리터 정도의 추가 공간 확보도 가능하다. 뒷 좌석 리어 시트 3개의 등받이는 모두 한꺼번에 또는 개별적(40:20:40 스플리트)으로 접을 수 있으며, 트렁크 공간까지 전동식 조절이 가능하다. 모든 등받이가 접힌 상태에서는 사실상 모든 공간에 적재할 수 있으며, 적재 공간은 1,390 리터로 증가한다. (파나메라 4 E-하이브리드 스포츠 투리스모: 1,295 리터)

파나메라 스포츠 투리스모는 고객들의 요청에 따라 러기지 컴파트먼트 매니지먼트(luggage compartment management) 시스템을 제공한다. 트렁크 바닥에 설치된 2개의 레일, 4개의 래싱 포인트(lashing point) 및 파티션 네트 등을 포함해 안전한 운반을 위한 다양한 기능들이 제공되고 있으며, 230볼트 전자소켓도 옵션 사양으로 이용 가능하다.

파나메라 스포츠 투리스모 5종 출시 및 가격

파나메라 스포츠 투리스모 모델은 현재 주문 가능하다. 유럽 시장 출시 예정일은 올해 10월 7일이며, 이어서 타 지역 출시도 11월 초로 예정되어 있다. 신형 포르쉐는 스포츠 세단에 이미 적용된 다섯 종류의 엔진으로 구분되며, 국내 가격은 다음과 같다 (부가세 포함)

파나메라 4 스포츠 투리스모 (330 마력): 140,900,000원

파나메라 4 E-하이브리드 스포츠 투리스모 (462 마력): 163,200,000원

파나메라 4S 스포츠 투리스모 (440 마력): 180,400,000원

파나메라 터보 스포츠 투리스모 (550 마력): 250,900,000원

파나메라 4S 디젤 스포츠 투리스모 (422 마력): 국내 출시 미정

2017 제네바 모터쇼 월드 프리미어 공개: 파나메라의 두번째 하이브리드 모델

가장 강력한 파나메라, '파나메라 터보 S E-하이브리드'

슈투트가르트. 포르쉐가 2017 제네바 모터쇼에서 파나메라의 두 번째 하이브리드 모델 '파나메라 터보 S E-하이브리드'를 월드 프리미어로 공개한다. 신형 파나메라 터보 S E-하이브리드는 포르쉐가 플래그십 모델로는 처음 선보이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로, 한층 더 강력한 퍼포먼스와 렉서리한 승차감 그리고 탁월한 효율성까지 모두 갖췄다. 전기 모터와 결합된 파나메라 터보의 4리터 V8 엔진은 680 마력(500kW)의 출력, 최대토크 86.7kg.m으로 더욱 강력한 파워를 전달한다. 또한 정지상태에서 시속 100km/h까지 가속하는데 단 3.4초에 불과하며 최고 속도는 310km/h에 이른다. 특히, 918 스파이더 슈퍼 스포츠카로부터 계승한 부스트 전략(Boost Strategy)으로 파워풀한 가속력을 발휘한다.

V8 엔진과 전기 모터가 결합된 독특한 주행 콘셉트

포르쉐는 신형 파나메라 모델 출시와 함께 파나메라 4 E-하이브리드를 통해 다시 한번 하이브리드 기술의 잠재력을 증명했다. 신형 파나메라 터보 S E-하이브리드는 136 마력(100kW)의 전기 모터와 550마력(404kW)의 V8 엔진을 결합했다. 포르쉐 하이브리드 모듈의 디커플러(Decoupler)는 기존 파나메라 4 E-하이브리드 모델과 같이 전자 클러치 액츄에이터(ECA)에 의해 전기기계식으로 작동해 반응시간을 단축시킨다. 2세대 파나메라의 다른 모델들처럼 빠른 변속이 가능한 8단 포르쉐 듀얼 클러치(PDK)가 장착되며, 주행상황에 따라 전·후륜에 구동력을 배분하는 사륜 구동 시스템 포르쉐 트랙션 매니지먼트(PTM)에 파워를 전달한다.

전기 모터는 에너지 전력 14.1 kWh의 액체냉각 리튬-이온 배터리(liquid-cooled lithium-ion battery)를 통해 파워를 공급받는다. 뒷 부분에 장착된 고압배터리는 230-V, 10-A 에서 6시간 안에 완충된다. 파나메라 모델 표준형 3.6 kW 충전기 대신 옵션형 7.2 kW 충전기와 230-V, 32-A 커넥션을 사용할 경우, 배터리 완충 시간은 2시간 24분에 불과하다. 충전 프로세스는 PCM 또는 포르쉐 카 커넥트 앱(스마트폰과 애플워치 용)의 타이머를 통해서도 시작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파나메라4 E-하이브리드에는 보조 에어컨이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어 충전 중에도 실내 온도를 조절할 수 있다.

이 밖에도 파나메라 터보 S E-하이브리드는 에어 서스펜션이 기본 사양으로 장착되어 있으며, 럭셔리 세단의 편안함과 스포츠카 수준의 성능이 조화를 이뤄 포르쉐만의 특별한 드라이빙 익스피리언스를 제공한다.

포르쉐 세라믹 컴포지트 브레이크(PCCB), 포르쉐 다이내믹 새시 컨트롤 스포츠(PDCC Sport), 포르쉐 토크 벡터링 플러스(PTV Plus), 파워 스티어링 플러스(Power Steering Plus), 911 터보 디자인의 21인치 알로이 휠이 기본 사양으로 적용됐다. 또한 보조 에어 컨디셔너, 공기 역학적으로 최적화된 디자인과 포르쉐 액티브 서스펜션 매니지먼트(PASM)가 포함된 세 개의 에어 챔버 서스펜션이 기본 패키지로 제공된다. 롱휠베이스의 경우, 리어 액슬 스티어링이 기본 사양으로 포함된다.

스포츠카 성능, 장거리 주행의 편안함, 효율성 3가지 요소의 조화

파나메라 터보 S E-하이브리드는 탁월한 퍼포먼스와 편안함 그리고 효율성의 3가지 요소가 완벽한 조화를 이룬다. 순수 전기모드인 "E-파워" 모드로 시동되며, 연료 소비 없이 전기 모터로만 50km까지 주행 가능하다. 가속페달에 대한 압력이 일정수준을 넘거나 전기배터리의 충전 상태가 최소 지점 밑으로 떨어질 경우, 파나메라 터보 S E-하이브리드는 전기 모터와 가솔린 엔진 파워간의 동력을 자동적으로 바꾸고 결합하는 "하이브리드 오토" 모드로 전환된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의 연비는 2.9l/100km(유럽 NEDC기준), CO₂ 배출량은 66g/km(고급 휘발유)이며, 전기모드 가동 시 16.2 kwh/100 km 이다.

'파나메라 터보 S E-하이브리드 이그제큐티브' 모델 데뷔

2세대 파나메라의 새로운 플래그십 모델은 올해 7월부터 유럽 시장을 시작으로, 하반기 안에 전 세계 순차적으로 출시될 예정이다. 파나메라 터보 S E-하이브리드는 오는 3월 7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되는 제네바 모터쇼에서 월드 프리미어로 공개되며, 150 mm 확장된 휠베이스 기반의 4도어 그란 투리스모의 이그제큐티브 버전 역시 모터쇼 개막과 함께 선보일 예정이다.

파나메라 터보 S E-하이브리드는 국내 판매가는 29,490만원이며, 파나메라 터보 S E-하이브리드 이그제큐티브 모델은 30,600만원이다.

모터스포츠 기술을 접목해 더욱 강력해진 자연흡기엔진 및 새시

도로와 트랙 위를 아우르는 911, 신형 포르쉐 911 GT3

스투트가르트. 포르쉐가 2017 제네바 모터쇼에서 신형 911 GT3를 월드 프리미어로 공개한다. 신형 911 GT3는 포르쉐의 정통 모터스포츠 기술력을 기반으로 경량화된 차체에 강력한 퍼포먼스를 발휘하는 모델로, 일반 도로에서도 레이스 트랙 위에서도 동일한 주행 경험을 제공한다. 1,430kg의 공차 중량으로 최대 500마력(368kW)을 발휘하는 신형 911 GT3의 자연흡기엔진은 4리터 수평대향엔진의 성능을 뛰어넘는다. GT 모델에 특화된 7단 포르쉐 더블클러치(PDK) 장착 시, 신형 911 GT3는 정지상태에서 시속 100km/h까지 단 3.4초만에 가속하며, 최고 속도는 318km/h에 이른다. 순수 수동 운전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제공되는 스포츠용 6단 수동 변속기 장착 시엔 정지상태에서 시속 100km/h까지 단 3.9초만에 가속하며, 최고 속도는 320km/h에 이른다. 신형 911 GT3는 포르쉐의 레이스 카 제조 시 사용되는 테스트 트랙과 생산라인을 거쳐 완성되었기에, 자사 모터스포츠 기술력이 성능에 탁월하게 구현되었다.

빠른 코너링과 안정적인 직선 주행

신형 911 GT3는 새시와 리어 액슬 스티어링에 변화를 주어 보다 빠른 코너링과 안정적인 직선주행을 이루어냈다. 먼저 새시에 가해지는 중량대비 마력이 2.86kg/hp(3.88kg/kW) 으로 코너링에 적합하며, 신형 2인승 모델은 기존 911 카레라 S 모델보다 25 mm 낮아 레이스 트랙에서의 빠른 코너링을 경험할 수 있다. 더욱 세련된 디자인의 새시는 액티브 리어 액슬 스티어링과 연결돼 최고의 핸들링을 자랑한다. 스피드에 따라 반대 또는 프론트 힐과 동일한 방향으로의 스티어링이 가능하며, 이는 차량의 민첩성과 안정성을 향상시킨다. 다이내믹한 엔진 마운트(engine mount)와 리어 디퍼렌셜 록(rear differential lock)은 차량의 다이내믹한 주행을 배가시킨다.

신형 911 GT3의 외관은 레이스 차량에 완벽하게 부합한다. 카본 리어 윙은 스포츠카의 공기 역학적 특성을 강조하며, 경량화된 프론트 엔드 및 프론트 스포일러는 기류에 최적화 되어 있다. 향상된 공기 역학성은 배기구가 위치한 경량의 리어 엔드와 새로운 디퓨저를 통해 나타난다.

다이내믹한 주행 경험을 위한 특별한 인테리어

고성능 신형 스포츠카의 인테리어는 최상의 주행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최적화 되어 있다. 지름 360mm의 GT 스포츠 스티어링 휠은 918 스파이더에서 계승되었다. 운전자와 탑승자 모두 한층 더 편안해진 시트 사이드 볼스터와 전자식 전후 조정 장치(fore/aft adjustment)를 통해 포르쉐 스포츠 시트 플러스(Porsche Sports seats Plus)를 경험할 수 있다. 시트 높이와 등받이는 전자식으로 조정 가능하며, 리어 부분의 시트 팬은 덮여 있다.

포르쉐는 신형 911 GT3 모델에 다음과 같이 세가지 추가적인 시트를 제공한다: 18 방향 전동식 조절이 가능한 어댑티브 스포츠 시트 플러스(adaptive Sports seats Plus), 접이식 등받이, 흉부 에어백(thorax airbag), 매뉴얼 전후 조정 장치가 포함된 스포츠 버킷 시트(sports bucket seats), 가벼운 탄소 섬유 강화 플라스틱 소재에 카본 위브 방식으로 마감된 풀 버킷 시트(full bucket seat)이다.

기본 사양으로 제공되는 포르쉐 트랙 프리시전 앱

실시간 온라인 주행 정보를 포함하는 내비게이션 등의 기능을 보유한 포르쉐 커뮤니케이션 매니지먼트(PCM)에 추가적으로 커넥트 플러스 모듈 및 포르쉐 트랙 프리시전 앱(Porsche Track Precision App)이 기본 장치로 탑재된다. 911 GT3 운전자들은 스마트폰을 통해 상세 디스플레이, 주행 자동 기록 및 분석 등이 가능하다.

출시 및 가격

911 GT3 모델은 현재 주문 가능하며, 올해 6월 중순부터 독일을 시작으로 전 세계 순차적으로 출시될 예정이다. (국내 출시 미정)

더욱 강력해진 신형 모델 출시로 포르쉐 911 라인업 강화

역동성과 편안함, 연비 효율까지 갖춘 신형 포르쉐 911 GTS

스투트가르트. 포르쉐가 신형 GTS 모델을 새롭게 선보이며 포르쉐 911 제품 라인업을 더욱 강화한다. 신형 GTS 모델은 911 카레라 GTS(쿠페, 카브리올레), 사륜구동인 911 카레라 4 GTS(쿠페, 카브리올레), 911 타르가 4 GTS 등 총 5종으로 오는 3월 독일을 시작으로 전 세계에 순차적으로 출시될 예정이다. 3.0리터 6기통 수평대향 터보차저 엔진의 신형 GTS는 기존 911 카레라 S 모델 대비 30마력, 자연흡기 엔진의 GTS 모델보다는 20마력(15kW)이 증가한 최고출력 450 마력을 자랑한다. 모든 모델에는 7단 수동 변속기가 기본으로 장착되며 포르쉐 더블 클러치(PDK)를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다.

보다 향상된 퍼포먼스를 위한 강력한 파워

최대토크 56.1kg.m (2,150 - 5,000 rpm)의 포르쉐 911 GTS 모델은 더욱 향상된 가속력과 탄력적인 주행 성능을 갖췄다. 모든 GTS 모델에는 포르쉐 액티브 서스펜션 매니지먼트 (PASM)가 기본 사양으로 탑재되며 특히, GTS 쿠페의 경우 PASM 스포츠 새시 설계를 통해 바디를 10mm 이상 낮췄다. 포르쉐 더블 클러치(PDK)와 스포츠 크로노 패키지를 기본 탑재한 '911 카레라 4 GTS 쿠페'는 포르쉐 911 라인업 중 가장 빠른 모델로, 정지상태에서 시속 100km/h까지 가속하는데 단 3.6초 밖에 걸리지 않는다. 모든 GTS 모델의 최고 속도는 300km/h 이상으로 특히, 쿠페의 경우 수동 변속과 후륜 구동의 결합으로 최고 속도 312km/h를 기록한다. GTS 모델의 성능은 더욱 향상되었지만, 여전히 효율적인 연비를 제공한다. 포르쉐 더블 클러치를 탑재한 911 카레라 GTS 모델의 연비는 8.3l/100km(유럽 NEDC기준)이며, CO₂ 배출량은 188g/km이다.

GTS 를 대표하는 블랙 컬러

911 라인업 중 GTS 모델들은 기술적인 부분은 물론, 디자인적인 면에서도 두각을 나타낸다. 후륜 구동 모델을 포함한 모든 GTS 라인은 1,852mm 와이드 사륜 구동 새시를 적용했다. 새로운 스포츠 디자인 프론트 에이프런은 스포티한 인상을 강조하고 있으며, 프론트 엔드는 공기 역학적으로 최적화되었다. 낮은 프론트 스포일러와 높아진 리어 스포일러는 카레라 S 모델에 비해 전·후방 차축에 가해지는 양력을 더욱 감소시킨다. GTS 모델 후면부에는

스모크드 테일 라이트, 블랙 실크 광택의 에어 인테이크 그릴, 스포츠 배기 시스템의 센트럴 블랙 트윈 테일파이프 등을 기본으로 장착해 디자인 완성도를 더욱 높였다. 테일 라이트 사이에 위치한 새로운 블랙 트림 스트립은 후륜 구동 모델의 특징인 반면, 라이트 스트립은 사륜 구동 모델 전용이다. 측면부의 스포츠 디자인 사이드 미러, 블랙 실크 광택 마감의 센트럴 락이 장착된 20인치 휠, 그리고 도어 부분의 GTS로고는 차량의 존재감을 더욱 부각시킨다. 또한, GTS 모델 최초로 블랙컬러로 제공되는 타르가 바는 '911 타르가'만의 차별화된 외관을 만들어낸다.

새로워진 포르쉐 트랙 프리시전 앱과 고품격 인테리어 장비

GTS모델의 DNA는 인테리어에도 반영되었다. 스포츠 크로노 패키지의 스톱워치는 대시보드의 중앙구성요소로 통합되었다. 이번 GTS 모델 출시와 함께 스마트폰을 활용한 자동 기록, 상세 디스플레이, 드라이빙 분석 등 '포르쉐 트랙 프리시전 앱(New Porsche Track Precision App)'의 기능은 더욱 강화되었다. 새로운 스티칭 패턴이 담긴 알칸타라 소재의 시트는 탑승자에게 안락함을 주며, 헤드레스트에 GTS 로고가 새겨진 스포츠 시트 플러스는 4방향 전동 조절이 가능해 향상된 측면 지지력과 편안함을 제공한다.

연료 소비 및 배출

911 GT3: 복합연비 12.9–12.7 l/100 km; CO₂배출 290–288 g/km

911 카레라 GTS: 복합연비 9.4–8.3 l/100 km; CO₂ 배출 212–188 g/km

911 카레라 GTS 카브리올레: 복합연비 9.4–8.4 l/100 km; CO₂ 배출 214–190 g/km

911 카레라 4 GTS: 복합연비 9.5–8.5 l/100 km; CO₂ 배출 216–192 g/km

911 카레라 4 GTS 카브리올레: 복합연비 9.7–8.7 l/100 km; CO₂ 배출 220–196 g/km

911 타르가 4 GTS: 복합연비 9.7–8.7 l/100 km; CO₂ 배출 220–196 g/km

911 카레라 4S: 복합연비 9.0–7.9 l/100 km; CO₂ 배출 208–180 g/km

파나메라 터보* : 복합연비 9.4-9.3 l/100 km; CO₂배출 214-212g/km

파나메라 터보 S E-하이브리드: 복합연비 2.9 l/100 km, 복합 에너지 소비 16.2kWh/100km;
CO₂배출 66g/km

파나메라 터보 S E-하이브리드 이그제큐티브: 복합연비 2.9 l/100 km,
복합 에너지 소비 16.2kWh/100km; CO₂배출 66g/km

파나메라 4 스포츠 투리스모*: 복합연비 7.9–7.8 l/100 km; CO₂배출 180–178 g/km

파나메라 4S 스포츠 투리스모*: 복합연비 8.3–8.2 l/100 km; CO₂ 배출 189–187 g/km

파나메라 4S 디젤 스포츠 투리스모*: 복합연비 6.8–6.7 l/100 km; CO₂ 배출 178–176 g/km

파나메라 터보 스포츠 투리스모*: 복합연비 9.5–9.4 l/100 km; CO₂ 배출 217–215 g/km

연료 소비 및 배출

파나메라 4 E-하이브리드 스포츠 투리스모: 복합연비 2.5 l/100 km;
복합 에너지 소비 15.9 kWh/100 km; CO₂ 배출 56 g/km

카이엔 S E-하이브리드*: 복합연비 3.4–3.3 l/100 km;
복합 에너지 소비 20.8–18.6 kWh/100 km; CO₂ 배출 79–75 g/km

사용된 타이어 세트에 따른 범위